1.

|  |  |
| --- | --- |
|  | **연평도** |
| **광역자치단체** | [인천광역시](https://namu.wiki/w/%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 \o "인천광역시) |
| **기초자치단체** | [옹진군](https://namu.wiki/w/%EC%98%B9%EC%A7%84%EA%B5%B0(%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 \o "옹진군(인천광역시)) |
| **면적** | 7.01㎢ (대연평도) 0.236㎢ (소연평도) |
| **인구** | 2,058명[[2]](https://namu.wiki/w/%EC%97%B0%ED%8F%89%EB%8F%84" \l "fn-2) |
| **인구 밀도** | 284.02명/㎢ |

**상세**

서해 5도 중 하나로 군사적 요충지인 탓에 한국군 부대가 주둔 중이다. 남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후 남북 간의 여러 분쟁의 장소가 되었다.

꽃게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등 어업상으로 중요한 곳이다. 예전에는 5월 조기철에 1,500척 이상의 어선이 모여들어 파시(波市)가 섰었으나 1968년 이후에 사라졌고, 현재는 조기 대신 꽃게를 중심으로 한 어장이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한다.

고기잡이 배 1960년

교육기관으로는 1999년에 초중등학교가 하나로 통합된 연평도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곳곳에서 패총과 무문토기·빗살무늬토기 등이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여겨진다.

본래 조선시대에는 황해도 해 주군 (벽 성군) 송림 면(松林面)에 속했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 (林慶業)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세자를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던 중 선원들의 부식이 떨어지자, 연평도에 배를 대고 나뭇가지를 꺾어 개펄에 꽂아주었더니 물이 빠진 뒤 가지마다 조기가 걸려 있어, 이것이 조기 잡이의 시초가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현재까지도 임경업을 기리는 사당 충민서(忠愍祠)가 존재해 있다. 연평도는 조기 잡이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외래문화의 도입은 1910년대에 천주교인 전응택(佺應澤,바오로)일가가 입도하여 교회(공소)를 설립하면서 비롯되었다.

연평도는 본래 해주군에 속했다가 1938년 해주읍이 시(당시는 府)로 승격되면서 해주시 주위의 종전의 해주군 지역을 벽성군(僻城郡)으로 개편할 때 벽성군에 편입되었으며, 8.15 해방 후에는 38선 이남지역이므로 경기도 옹진군(擁津郡)에 편입되었다.

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38선 남쪽인 연평도는 경기도 옹진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수만 명의 피난민이 이 섬을 거쳐 남하하였다.

1995년 3월 1일 옹진군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고, 1999년 7월 20일에 행정구역명이 송림면에서 연평면으로 개칭되었다.

인천광역시 인천항으로부터 뱃길로 120 km 떨어져 있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령반도와는 불과 12 km 떨어져 있다. 이런 탓에 남북 간의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며, 2010년 11월 23일 조선인민군이 연평도를 포격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대연평도**

대연평도 및 주변 섬들

**대연평도**(大延坪島)는 경기만 북서쪽에 있는 면적 6.14 km²[[7]](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 \l "cite_note-7)의 섬으로, 북방한계선 과 불과 3.4 km 떨어져 있다. 연평도의 본섬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흔히 '연평도'라 하면 대연평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 **부속도서**

* 당도(堂島, 당섬) : 연평도와 870여 m의 방조제로 연결되어 선착장(당섬선착장)이 설치되어 있다.
* 책도(冊島)
* 모이도(毛伊島)
* 용뒤섬
* 구지도

### 소연평도

### **소연평도**(小延坪島)는 연평도로부터 5 km 남쪽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연평도의 6분의 1인 1.0236 km²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대동여지도 》 등에서는 **산연평도**(山延坪島)라고 쓰여 있다. 최고점은 해발 214 m인 연화봉이다. 섬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취락은 섬의 북서쪽 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민은 100여 명이

2014년 4월부터 중국 국적의 어선들이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해경특공대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진도 해역으로 떠난 이후 더 기승을 부렸다고. 이 어선들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면 북한 지역으로 달아났다가 단속을 멈추면 바로 다시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와 불법 조업을 재개한다. 5월 1일에는 150여척이나 몰려왔다고 하니 이쯤되면 해적이 따로 없다.  
  
2016년 6월 6일 참다못한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연평도 불법 조업 어선 2척, 어민이 나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25085" \o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25085" \t "_blank) 연평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수 백척 중 달아나지 않는 2척을 우리나라 어선 5척이 밧줄로 묶어 끌고 인천해양경찰에 압송했다. 과정에서 저항은 다행히 없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해경에선 중국 어선 선장 47살 A씨와 52살 B씨를 대상으로, 불법 조업 여부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옹진섬과 연계해서 관광을 전개하고 있음

섬에 가는 방법은 인천 부두에서 여객선을 타고 가면 된다. 2021년 현재 고려고속훼리의 플라잉 카페리호가 고정으로 운항 중이다. 운임은 편도 5만원 상당으로 비싼 편. 다만 인천주민은 뱃값 반 값 할인, 연평도민은 약 7,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섬의 면적이 좁아서 택시가 다니지 않으며,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는 2011년 9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온 방문객은 버스 시간대를 못 맞추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주말과 공휴일은 생각보다 자주 운행하지 않으므로 버스 시간을 잘 확인해서 타야 한다